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Homepage:https://www.mif.or.jp E-mail:miyainfo@mif.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제 15회 세계와 토모다치미야자키국제 미니 페스타

이번년도는 '국제 미니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 할 예정입니다.
아트 페스티벌, 미니 국제이해강좌, 사진으로 보는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행보, 세계 민족 의상 전시 등을 실시합니다.

국제플라자 휴관일 안내 2020년 11월3일(화) 는 휴관합니다.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11월 28일 (토)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발자취》



협회가 설립 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협력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되돌아봅니다.

《미니 국제이해강좌》



3개국의 강사를 초빙하여 개최합니다.

- 미니 국제이해강좌1 베트남의 패션에 대해 10:30 ~ 11:30
- 미니 국제이해강좌2 중국어의 음악에 대해 13:00 ~ 14:00
- 미니 국제이해강좌3 덴마크의 음식·요리에 대해 14:45 ~ 15:45

《민족 의상전시》



국제플라자에서 매달 다르게 전시하고 있는 민족 의상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색, 형태,소재가 다른 의상들을 기대해주세요.

'미니 국제이해강좌'는 인원 수의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주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5회 아트 페스티벌》

좋아하는 작품에 투표해봅시다.

- ◇기간 : 11월18일(수)~12월5일(토)10:00~19:00
- ◇장소 :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 ◇표창 : 관람객의 투표에 의해 선발된 각 부문의 상위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회의실B

◇정 원 : 각 강좌 1 5명 (응모자 다수의 경우는 추첨)

◇대 상 : 현내 거주 일본인 또는 외국인

◇마 감 : 11월 4일 (수)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①이름 ②연락처(주소·전화번호·E-mail) ③강좌 참가 희망국 2지망까지 기재 전화, FAX, 메일, 방문 중 하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자 발표는 후일 엽서로 안내드립니다.

◇신청·문의 :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JICA국제협력부스》



- 「SDGs」에 관한 전시소개
- 미야자키현JICA패밀리의 소개 (미야자키현 청소년 해외협력대를 지원하 모임, OB회, 미야자키현JICA파견 전문가 연락처)
- 월드 크래프트:세계의 조각천으로 패브릭 단추를 만들어보자
- 협력대 내비게이션 (JICA자원봉사자 상담회) 등
- ◇시간 : 10:00~17:00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 초급 2 (야간)

※사전 신청 필요

현내 거주 외국인 분을 대상으로 일본어 초급 강좌를 야간에 개최합니다.

◇일 시 : 11월5일(목)~2월16일(화) 총 25회

※ 12/24(목)·12/29(화)·12/31(목)·1/5(화)·2/11(목)는 쉽니다.

매주 화요일·목요일 18:20~20:10

◇장 소 : MSG 10호관 (미야자키시 오이마츠1-3-3)

◇대 상 : 히나가나, 가타카나 를 읽을 수 있는 분.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 초급1'을 수료하신 분.

◇수강료 : 무료

◇교과서비 : ¥2,376 (세금포함)

◇신청·문의 :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주민에 의한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미야자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나와 일본' 이라는 테마로 일본어로 스피치를 진행합니다!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회의실

◇일 시 : 11월21일 (토)

콘테스트 13:00 표창식 14:45

※이번년도는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해 관객 입장 제한을 실시합니다. 각 발표자에게 초대권을 배부하므로 초대권 1매를 소지하신 분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또 콘테스트의 모습은 당일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므로 입장이 불가능한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관람 부탁드립니다.



제 1회 일본어 교실 in 카와미나미/니치난

※사전 신청 필요· 참가비 무료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봅시다!

<카와미나미>

◇일시 : 11월21일 (토) 13:30~15:30

◇장소 : 카와미나미 평생학습센터

◇접 수 : 15 명(선착순)

◇대상 :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 가와미나미와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신청방법 : 이름, 전화번호, 국적, 일본어 레벨을 메일 또는 FAX로 알려주십시오.

◇마 감 : 11월 16일 (월)

◇신청·문의 :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니치난 >

◇일시 : 11월28일 (토) 13:30~15:30

◇장소 : 니치난시 평생학습센터 학습피아

◇접 수 : 15 명(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대상 :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 미야자키현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신청방법 : 이름, 전화번호, 국적, 일본어 레벨을 메일 또는 FAX로 알려주십시오.

◇마 감 : 11월 20일 (금)

◇신청·문의 :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이해강좌

◇일 시 : 12월6일 (일) 10:00~17:00

◇장 소 : 이온몰 미야자키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의 4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체험코너·판넬 전시를 개최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일본어 연습 ※자유 참가, 무료

◇일 시 : 10:30~11:30

[수요일] 11/4, 11/11, 11/18, 11/25

[금요일] 11/6, 11/13, 11/20, 11/27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회 ※무료

생활 속에서 곤란한 점을 중국어 와 한국어 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엄수 예약제 당일 직접 오셔도 대응 가능.

◇일 시 :

중국어 11월7일(토) 14:00~16:00

한국어 11월21일(토) 10:00~12:00

◇장 소 :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

◇접 수 : 4 명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회 in니치난

생활 속에서 곤란한 점을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는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번역기 전화 통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지킵니다.

◇일시 : 11월28일(토) 일요일

◇시간 : 15:30~16:30

◇장소 : 니치난시 평생학습센터 학습 피어

◇마감 : 11월21일 (토) 까지 메일 또는FAX로

- ① 이름 ② 연락처 (전화 번호) ③ 상담하고 싶은 것
- ④ 상담하고 싶은 언어를 가르쳐주세요

◇문의 :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



타단체로부터의 안내 <기요타케 마을 >

Kiyotake de English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음료 제공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마실 음료는 각자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1월7일 (목) 10:00~11:30

◇장 소 : 카노지구 교류센터 (학습실)

◇회장 주소 : 미야자키시 키요타케정 카노오츠 1 0 4 7 번지

◇참가비 : 회원 = 300엔 비회원 = 500엔

◇대상 : 고등학생 이상으로 영어로 일상회화가 가능하신 분

◇문의 : 키요타케정 국제교류협회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시원하다



국제교류원 박유진

여러분들은 '시원하다'라는 한국어를 알고 계신가요? 일본어로 번역하자면 「涼しい」와 같은 말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를 '시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계절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번 11월 칼럼에서는 '시원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예문을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1.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면 시원하다. 2. 마사지를 받으니 어깨가 시원하다. 3. 오랜만에 청소를 하니 속이 시원하다.
4. 뜨거운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다. 5.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다. 위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니양으로 쓰이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한국인들은 뜨거운 국물을 먹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시원하다'라고 하고, 또 상쾌하거나 기분이 좋은 상태를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정의 내릴수 없는 단어이지만,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재미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원하다'라는 단어를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한국인들만 이해하고 있는 한국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적합한 상황들을 찾아보고 직접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